

강진 견과류 웰빙숲 등 지역특화조림 추진

단기 산림소득작물 육성 박차... 개암나무(헤이즐릿) 지역특화 공모사업 착공



견과류 웰빙숲 조성사업 개암나무(헤이즐릿)식재예정지 정리작업 모습.

강진군은 산림의 공익성을 증대하고 단기 산림소득작물 육성을 위한 특화조림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3월 군에 따르면 지역특화조림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포함 총 3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3월부터 견과류 웰빙 숲 1개 지구, 4ha와 황철 특화 숲 2개 지구, 12ha에 조림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처음 공모사업에 선정된 '견과류 웰빙 숲 조성사업'은 커피향이 좋은 개암(헤이즐릿)나무를 식재하는 사업이다. 우리에게 헤이즐릿이라는 이름으로 더욱더 친숙한 개암은 옛날

농촌에서는 '개금'이라고 불리우기도 했으며, 커피 가운데 향이 좋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헤이즐릿 커피가 바로 이 개암을 볶아 만든 커피다.

강진군은 앞으로 호두, 비자, 폐칸 등의 견과류를 중심으로 다양한 산림소득작물 육성을 위한 조림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전재영 해양산림과장은 "소비자들의 다양한 임산물 수요에 부합하는 산림소득작물 육성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한홍수 기자

진도 "여행도 하고 상품도 타고"

'모바일 스탬프 투어' 실시... 운림산방 등 22곳 대상

진도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진도군 모바일 스탬프 투어' 행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진도군 거주자를 제외한 전국민이 참여할 수 있으며, 운림산방, 진도타워 등 진도군 주요 관광지 22개소가 대상이다.

주요 관광지 중 18개 이상 모바일 앱 인증 완료하면 30,000원 상당, 15개 이상 인증 완료시 15,000원 상당, 10개 이상 인증완료시 10,000원 상당의 진도 특산품을 증정한다.

진도군 모바일 스탬프투어는 모바일 앱을 활용해 운영하고 있으며, 스탬프 투어에 참여하려면 플레이스토어나 앱 스토어에서 스탬프 투어를 검색해 설치한 뒤 진도군 스탬프 투어를 선택하면 된다.

진도군 관광과 관계자는 "코로나로 대부분의 축제가 행사가 취소돼 지역 경제가 침체해 있다"며 "가족·친구·연인 등이 참여할 수 있는 비대면 행사로 진도군의 관광 명소를 알리고 지역 농수산물 판촉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박재영 기자

목포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목포시가 맹견 소유자에게 책임보험 가입을 독려했다.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지난 2월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위반 시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3일 밝혔다.

맹견 책임보험 가입 대상 견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다. 시베리안 허스키, 셰퍼드, 진도견 등은 대형견이더라도 맹견 책임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다.

법 개정 이전에는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보험사에서 판매했으나 대부분 보장금액이 낮고, 대형견이나 맹견의 경우 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개물림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에 한계가 있었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 1명당 8천만원,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천5백만원, 다른 사람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백만원 이상을 보상하고 있다. 보험료는 마리 당 연 1만 5000원(월 1250원) 수준으로 맹견 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했으며 하나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삼성화재, 롯데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시는 반려견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평화광장, 노을공원 등)에서 맹견 의무보험 가입 안내 및 팻티켓 준수 홍보를 진행 중이다.

해남 '2050 탄소중립' 선도한다

탄소중립 종합계획 수립... 조례제정 등 적극 추진 방침

해남군이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발맞춰 2050 탄소중립 실행계획 수립 추진 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대대적인 사업 발굴과 함께 범 군민이 참여하는 실천 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해남군은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가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5대 중점추진 과제를 선정하고, 한반도가 시작되는 곳, 땅끝해남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해남군은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지자체 협의체 가입과 함께 2050 해남군 탄소중립 비전 선포식 개최, 해남군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조례 제정, 기후변화 대응 해남군 탄소중립 전략 계획 수립 용역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 7대 국민체감형 대표과제 및 해남군 대응 과제를 발굴해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탄소중립은 개인이나 회사 단체 등에서 배출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2016년 발효된 파리협정 이

후 121개 국가가 '2050 탄소중립 목표 기후동맹'에 가입하면서 전 세계적 화두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19이후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세계 주요 국가들의 탄소중립 선언이 가속화되면서 지난 2020년 12월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추진전략을 발표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참여도 본격화되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우리나라 육지의 최남단 땅끝을 탄소중립 핵심 전략지역으로 전환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종합실행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다"며 "전국 제일의 농업업 청정지역이자 기후변화의 관문인 땅끝해남에서 2050 탄소중립 전략을 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해남=김동주 기자

영암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본격 추진

어르신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사회참여 기회 확대

영암군은 저소득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 및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공백 방지를 위해 지난 2일부터 노인일자리 사업(공익활동, 시장형,

사회서비스형)을 전면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수행기관 및 사업장(읍·면·포함)에 코로나19 대응 노인일자리 사



업 운영 가이드 라인을 배포하여 종사자 및 참여자의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의무화, 참여자 간 거리 유지 등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각종 사고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참여자 노인의 소득 지원 강화를 위해 희망자에 한하여 활동(근로)시간을 기존 월 30시간에서 월 42시간으로 연장하여 운영할 방침이며, 활동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참여자의 편리성과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현재 영암군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총 52억6800만원을 투입해 3개 유형 12개 사업에 총 1509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영암=김형두 기자

무안 청년 창업 사업화 컨설팅 지원

참여자 22일까지 모집... 15개 팀 선정

무안군은 오는 22일까지 관내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 창업 사업화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군은 창업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3명 이하) 15개팀을 모집해 예비창업 패키지 등 각종 공모사업 선정과 민간기업 투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창업아이템의 구체화와 경쟁력 확보를 통한 건실한 청년 창업가 육성에 나선다.

사업은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창업보육전문기관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실시할 계획으로,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도내 창업·

투자 전문 멘토와 연계 후 최종 평가를 통해 15개팀을 선정한다.

아이템 내용에 따라 '공모사업계획서 컨설팅' 10개팀, '투자유치설명회 컨설팅' 5개팀으로 분류해 비즈니스 모델 수립, 모의피칭, 모의투자유치설명회(IR) 등에 필요한 창업 사업화 전문 컨설팅 비용으로 팀당 150만원을 지원한다.

모집대상은 공고일 기준 관내 거주자로서 사업장을 둔 19세 이상 45세 이하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초기청년창업자이다.

/무안=김상호 기자

신우철 완도군수 '플라스틱 줄이기' 캠페인 동참

SNS 릴레이 캠페인 '고고 챌린지' 참여

신우철 완도군수가 지난 2일 생활속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SNS 릴레이 캠페인 '고고(Go Go)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 캠페인은 지난 1월 前 조명래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작한 것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와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약속한 뒤 다음 릴레이 주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 군수는 "투명 페트병 혼합 배출하지 말고, 아이스 팩을 재사용하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가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으로 인해 동·식물은 물론 인



체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 시기는 먼 미래가 아닌 곧 현실이 될 수 있다"며, "다 함께 탈 플라스틱을 실천하여 깨끗한 자연환경을 우리의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완도=이두식 기자

명암의 농산물

건강과 웰빙의 대표농산물!

달마지쌀골드

대봉감

매력한우

무화과

영암멜론

영암배

황토고구마

황토수박

명암우수

농·특산물

청정지역 황토에서 충분한 일조량과 맥반석 물로 재배된 영암농특산물은 친환경농특산물로 품질과 맛이 월등합니다